

기술표준뉴스

철구조물 부식방지 非 소모성 전극 개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를 이용한 철구조물 부식방지 기술의 핵심인 “소모되지 않는 전극(양극)”을 개발하였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전극은 티타늄 위에 전기가 통하는 금속산화물을 입힌 촉매성 양극으로 현장 실험에서 기존의 고규소철 전극에 비해 부식방지 성능은 20배 이상, 수명은 1만배 이상 일 뿐만 아니라 생산 단가도 전량 수입하던 외국제품보다 3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술 개발에는 3년간 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기술표준원과 함께 왕도방식, 동양방식, 세희엔지니어링, 삼공사,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하였고, 이 전극은 조선, 건설, 발전소, 석유화학, 배관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연간 1백억 원 규모의 수입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설날 계량기 특별단속 실시

기술표준원은 제수용품 및 일반생활용품 등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설 명절을 맞아하여 국민이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거래의 척도가 되는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군 구를 통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단속은 저울류의 사용증가가 예상되는 2002년 1월 21일부터 구정전까지 전국 16개 사·도(사·군·구 포함)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중

점단속 내용은 검정미필, 사용공차 초과, 변조여부 및 비법정계량단위의 상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의 거래가 많은 정육점, 청과상,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군 구간 단속공무원이 교차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설연휴 저울류 특별단속으로 불법 저울류 사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기술 및 우수품질제품 인증서 수여

기술표준원은 2002년 2월 27일 (수)신기술 및 우수품질제품 인증서를 수여한다.

(주)엠씨엠텍의 멀티칼라 강판을 비롯한 11업체 13건으로 금번수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291업체가 수여받았다. 인증업체의 매출총액은 2000년기준으로 55조에 해당하며, 인증업체의 수출은 매년 30%의 신장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업체를 대상으로한 해외전시회의 지원, 기술판매의 촉진을위한 여러 시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ISO/TC 215/WG2(의료정보) 국제회의 참가결과

二 ISO/TC215(의료정보) 국내위원장인 경북대

학교 의과대학 의과과학 정보센터장 “곽연식”
교수가 2002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WG2(Messeging &
Communications) 회의에 참석하였음

□ 주요 논의사항

- ▶ 미국 ANSI 신하단체인 HL7(Health Level 7) 과 ISO와의 관계정립
 - ▶ Messaging 보안에 관한 내용은 4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벌어지는 WG1 및 WG4 회의에서 조율기로 결정
 - ▶ NWIP로 승인된 문건: Helth Informatics - P - O - Medical device communication - Framework & overview 등 5건
 - ▶ CD문서 : Helth Informatics-P-O-C Medical device communication - Framework & overview(ISO 11703 - 10101)등 2건
 - ▶ DIS문서 : Helth Informatics - Clinical analyzer interfaces to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s-Use profiles(ISO 18812)등 4건
 - ▶ 차기회의시 논의 : Health Informatics -P-o-C Medical device communication - Application profiles Base standard (ISO 11073-20101)
- ※ HL7(Health Level 7) : 미국에서 1987년에 세워진 의료 정보 전문 단체로 의료장비와 각 병원간의 상호 접속업무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20여개의 회원국이 있음 또한 HL7에서 제안한 신규규격은 ISO에서 NWIP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DIS로 넘어가게 협약되어 있음

□ 차기회의

- 일 시 : 2002년 4월 16일~ 18일
- 장 소 :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 국내대표단 : 관련식위원장 등 3명(예정임)

제59차 멀티미디어 동영상기술(MPEG)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멀티미디어 동영상기술(MPEG) 국제 표준화 회의가 2002년도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주 롯데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JTC1/ SC29 WG11의 27개 정회원국가에서 약 250여명의 MPEG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국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한 뜨거운 열전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58차 태국 회의까지 MPEG 2/ 4/ 7/ 21 분야에서 총 55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켜 미국 일본등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들어서는 향후 모바일 동영상 전자상거래등에 활용 될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의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MPEG-21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중에 있다.

2001년도 말까지 우리나라는 DVD등에 활용되는 MPEG-2의 기술로 총 1,800만\$의 기술료 수입을 올리 는등 기술수출형 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2002년도 부터는 28개의 우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MPEG-4분야에 까지 기술료 장수가 확대되어 디지털TV 및 IMT2000동영상 서비스등의 상용화가 예상 되는 2005년도 이후부터는 수억 달러의 기술표준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MPEG 국제표준화 회의는 1988년도부터 시작하여 매년 4~5차례씩 세계 전역을 순회하면서 표준화회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도 제25차 회의 와 1999년도 JTC1/ SC29 총회를 개최한바가 있다.

